

광주·전남 장애영유아가주시설 전무...갈 곳 없는 '3세 자폐아'

부모 이혼에 엄마 건강 나빠 홀로 된 아이 돌봐줄 시설 한 곳도 없어 수소문 끝 경남 창원 시설 찾았지만 "아이 보고 판단하겠다"며 난색 광주 6세 미만 장애아동 250여명...장애 영유아가주시설 마련 시급

“세 살배기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어요.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돌볼 사람이 없어 우리 시설에 왔어요. 그런데 광주·전남에는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을 돌볼 시설이 한 곳도 없어요. 어떻게해요?”
광주의 한 아동보육시설 관계자는 요즘 세 살배기 도영이(가명)를 보며 짚기만 한다.
2017년에 세상에 난 도영이는 올해로 만 3세다. 매일 짝 겨우살이 부모가 없다. 부모의 이혼으로 엄

마 손에 키워졌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가 돌볼 수 없어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겨졌다가 2년 전 보육 시설로 옮겨졌다.
시설 관계자들은 돌이 지나도 잘 걷지 못했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행동을 곧잘 하곤 했다. 수줍어하는 듯 눈을 못 맞추는 모습도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혹시나 싶어 병원을 찾았고 이달 초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자폐증은 언제 진단해서 어떤 치료를 시키는가에

따라 아이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도영이의 경우 돌봐줄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만큼 충분한 치료하고 관리할 시설이 절실히하다.
하지만 광주·전남에서는 도영이같은 장애를 가진 영·유아(만 6세 미만)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장애 영·유아가주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24시간 장애인 돌봄 거주시설만 광주 24곳, 전남 38곳 등 62곳에 이르지만 만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를 맡아줄 곳은 단 한곳도 없다.
그러나 자폐 증상은 여러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학습치료사, 특수교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어우러져야 하지만 이같은 시설도 한 곳도 없다는 게 복지시설 전문가들의 하소연

이다.
도영이가 현재 머무는 아동보육시설만 하더라도 언어치료 외에 해줄 게 없다. 아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얘기다.
도영이를 위탁·보호 중인 보육시설은 수소문 끝에 전국 9곳의 장애인 영·유아 거주시설을 찾아냈지만 '타 지역 아이라 위탁·보호하기가 어렵다', '현재 정원이 가득 차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
다만, 경남 창원의 한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는 "우선 아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시설측은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경남 창원까지 세 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창원으로 옮길 경우 엄마를 대신해 한 달

에 한 번 찾는 외할머니는 한 동안 도영이를 만날 수 없게 된다.
광주에 주소록 둔 만 6세 미만 장애 아동은 251명. 더 나은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도영이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둔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모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재할과 자립을 도울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 사회복지시설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일반적인 아동양육시설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애 영유아는 생애주기에 맞는 장애 정도에 맞는 치료가 필수적이다"며 "영유아 시기 전문적인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은 장애 아동에게 치명적 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음주운전 1심 유죄→항소심 무죄 왜?

법원 '위드마크 성별계수 불리하게 적용' 판단

5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 오후 1시 15분께 차를 몰고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를 지나다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마트로가 맥주 1캔을 마셨고 막걸리 2병을 모르는 남성과 나눠 마셨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3%로 측정됐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찾깁에 인근 슈퍼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마셨을 뿐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사고 전날인 7월 15일 밤 9시까지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A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0.055%로 계산돼 최소한 면허정지기준인 0.03% 이상에서 운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위드마크 공식은 주로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시간이 오래 경과해 현장의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내흡수율, 체중과 성별에 따른

계수 등을 감안해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한 계산법이다.
1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의 경우 추정치인 만큼 피의자에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성별계수(남성 0.52-0.86) 반영 과정에서 불리하게 계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경찰이 0.86이 아닌, 0.52를 적용해 교통사고 직후 마신 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때 중성 알코올농도 수치(0.113%)에서 빼면 0.018%로 면허정지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A씨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임신 중 입덧에 거주지 이탈 자가격리 위반 벌금 150만원

임신 중 심한 입덧으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한 30대 여성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격리시설을 벗어났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여·3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중국에서 입국,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신 중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식사 및 산책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28일 2시간 가량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박 부장판사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아니고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간 석유저장고 기름 유출 광주 송하동 주민 약취 호소

광주시 남구 석유 저장고에서 기름이 유출, 주민들이 약취를 호소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21일 광주시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0시께 남구 송하동 송암배수펌프장으로 등유가 흘러들면서 일대 주민들이 약취를 호소하는 신고가 잇따랐다.
남구는 조사결과, 송하동의 민간 석유저장고에 보관중인 등유가 낡은 밸브 때문에 유출, 하수로를 따라 흘러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송암배수펌프장은 하수를 1차 정화작업을 하는 곳여서 하수에 유입된 기름은 정화를 거치게 돼, 수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와 광주환경공단은 배수펌프장으로 흘러 들어온 기름 제거 등 정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검체 채취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코로나19 의료진들이 지난 19일 감염취약시설에서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최천배 기자 choi@kwangju.co.kr

'종부세=5·18 공수부대' 왜곡...대구 일간지 만평 논란

오월단체·민주당 광주시당 사죄 촉구

대구지역 언론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 사진을 모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만평을 내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5·18 정신을 훼손한 대구매일신문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21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대구지역 일간지인 매일신문은 지난 18일 자사 홈페이지에 '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만평을 게시했다.
건보료, 재산세, 종부세를 군인의 모습으로 의인화해 9억원 초과 1주택자를 곤봉으로 때리는 모습의 만평은 5·18 당시 시민을 가혹하게 진압하던 계엄군 사진을 그대로 모방,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해당 언론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청원자는 "광주시민을 폭행하고 살인하는 공수부대 군인을 건보료와 재산세 등으로 모사하면서 국민을 괴롭히고 짓밟는 정부로 표현했다"며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만평을 본 사람들이 과거 전두환 정권에 학살당한 광주시민들처럼 현 정부의 피해자인 듯 느끼도록 선동하려는 목적인 것"이라며 "만평을 그린 사람은 물론 관리 감독 책임을 가진 책임자 등에 대해 사법처리 해 달라"고 강조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5·18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에서 5·18에 대해 혐오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만평 '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감정평가액 | 최저매각가액 | 비고 |
|-------------|------|--|--------------|-----|-------------|-------------|---|
| 2020타경 3223 | 1 |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35, 101동 13층 1311호 [상등, 비파1차아파트] | 48.34㎡ | 아파트 | 67,000,000 | 67,000,000 | |
| 2020타경 3582 | 1 | 목포시 현산로59번길14, 103동 1층 103호1상등동, 한성타워맨션]59.46㎡ [공부상토지] | 59.46㎡ | 아파트 | 63,000,000 | 63,000,000 | |
| 2020타경 4660 | 1 | 목포시 남해로73, 101동 3층 303호 [상등동, 황재맨션] | 84.87㎡ | 아파트 | 92,000,000 | 92,000,000 | |
| 2020타경 2985 | 1 |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729-3 2984㎡ | 2984㎡ | 장중지 | 335,725,000 | 335,725,000 | 일괄매각, 토지등에 공경및광업재단차당법제6조특별 설정되어있으나현황상소재물명 |
| 2020타경 3162 | 1 |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371 1891㎡ | 371.1891㎡ | 답 | 423,622,000 | 423,622,000 | 일괄매각,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일부지속됨 |
| 2020타경 3308 | 1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942-2 1805㎡ | 1805㎡ | 전 | 17,328,000 | 17,328,000 | 농지취득자격증명 |
| 2020타경 3889 | 1 | 영암군 도포면 구락리 184 863㎡ [매각포함되는수목있음 [목책은체시외수목으로표시하지않음]] | 863㎡ | 전 | 8,553,300 | 8,553,300 | 현황전면적, 농지취득자격증명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감정평가액 | 최저매각가액 | 비고 |
|--------------|------|---|--------------|-----|---------------|---------------|--|
| 2020타경 4110 | 1 |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산6-15 255㎡ | 255㎡ | 임야 | 32,385,000 | 32,385,000 | 현황전 |
| 2020타경 4646 | 1 | 무안군 물탄면 사창리 1557-2 804㎡ [공유지] | 804㎡ | 답 | 8,904,000 | 8,904,000 | 일괄매각,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
| 2020타경 52522 | 1 | 영암군 삼호읍 용담리 29 2248㎡ [체시외수] | 2248㎡ | 전 | 225,044,000 | 175,344,000 | 농지취득자격증명 |
| 2020타경 52768 | 1 | 함평군 함평읍 만촌리 229-1 803㎡ | 803㎡ | 전 | 12,045,000 | 12,045,000 | 농지취득자격증명 |
| 2020타경 52973 | 1 |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381-14 6644㎡ | 6644㎡ | 임야 | 1,023,176,000 | 1,023,176,000 | 일부지상락전상태 |
| 2020타경 53136 | 1 |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산366 5851㎡ | 5851㎡ | 임야 | 14,627,500 | 14,627,500 | 연고지미상분묘소 |
| 2020타경 2824 | 1 | 목포시 북교동 149-10 67.1㎡ [공부상목포시 소유의목조초가지붕단층주택 [38.02㎡] 소재하는것으로되었으나현황상소재물명] | 67.1㎡ | 주택 | 373,305,220 | 373,305,220 | 일괄매각, 체시외 건물및대량발견설비 [3kw]매각포함, 목책2도로일부포함 |
| 2020타경 4417 | 1 | 함평군 송골면 석창리 522-12 5853.2㎡ [체시의 기계실 34.1㎡, 기계기구목책창조 [체시의건물 [1-1, 1-2]매각포함, 기계기구중 1-2 산소용해모터1기, 1-2외과재중진시설, 온천발생장치, 4-1브로워10마력 1기는소재물명 또는확인불능, 기계기구1-5, 1-9공부상면적이 실제와다소상이, 기계기구목책은중복되는부분이있으며경정당시유출증명서발행] | 5853.2㎡ | 양어장 | 698,255,800 | 698,255,800 | 일괄매각, 공장및 광업재단차당법제 6조등기계기구포함, 기계기구목책 등채되지않은파쉬폼프 [1-30], 판정 [1-31]포함[단, 역회선소설비1식 매각 제외] |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위해 최고기대수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행히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행할 경우 매수신청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소송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종 진행되는 매각일에 매수신청보증금의 이반으로 실외되

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4. 5.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4. 12.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비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하는 공제기금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등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계좌)를 제출한 후 [입찰 봉투]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된 공판포 개찰을 위하여 최고와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개찰의 가격으로 정할한 사항을 최고기대수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개찰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기대수고인 및 저수익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항가 및 대금납부
① 매각대금의 납부방법은 대금에 따라 매각결정일 때 매각자가 의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 때 확정된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간은 최종 매각결정일 때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권을 상실한다. 다만, 매각결정일 때 지정된 날의 3월말까지 매수신청인이 매각대금 오지 않아,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후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 납부완료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대금,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대금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수입확인서 및 등록세정수입확인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발송한 후 매각대금 납부한 뒤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매각대금 납부완료 후 매수인 또는 대항책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의주의 지대금 등이 설정된 납부보증금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매각과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영업자를 위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임차인들의 알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알람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인사총괄(신청)과에 비치하여 알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결정일 때의 알람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신청에 고지되는 알람은 최종의 매각결과에 해당하는 알람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결정일 때 알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 등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매각결정일 때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알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알람 가능 정보는 매각대금 납부 완료 후 24시간 내 국민편의를 위하여 무료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결과가 상환이나 환고, 대금결정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으므로, 관공에서는 알람에 관여하는 반드시 법원에 안내서로 게시된 매각기일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정일 때 알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공정배